

역사학의 '브나르도' 運動

무크誌 「韓國史市民講座」·「역사비평」 나와

韓國史市民講座 제1집

— 潮閣/A 5 신/172면/2500원

역사비평 제1집

역사문제연구소/A 5 변형/392/3900원

전통사학계의 연구 업적 소개

역사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두 권의 역사 무크誌가 9월말 거의 동시에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사학계의 원로 李基白교수(한림대)가 편집 책임을 맡아 일조각에서 펴낸 「韓國史市民講座」와 鄭奭鍾교수(영남대)가 소장자로 있는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역사비평」이 그것.

그런데 두 책이 모두 역사 연구성과의 대중화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내용이나 거기 참여한 필진의 구성 등에서는 거의 판이하다고 할 정도로 대조적이어서 이채롭다.

먼저 「韓國史市民講座」의 경우는 광복 이후 역사학계의 연구 업적을 쉬운 말로 소개·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정통사학계가 축적해 온 연구성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대개 전문 학자들끼리만 교환되어 왔던 느낌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의 「시민강좌」를 통해 역사의 대중화에 소홀했었다는 자기 반성의 결과를 학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강좌」는 “앞으로 시민과 더불어 역사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李基白교수의 말처럼, 전문 연구가와 일반 독자를 매개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시민강좌」의 또다른 특징은 이른바 재야사학의 정통사학 비판에 대한 逆攻이라는 점에 있다. 간행사를 통해 李교수는 “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세상에는 한국사학의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논란’이란 다름아닌 재야사학의 주공격 목표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식민주의사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제1집에서는 ‘식민주의사관 비판’을 특집으로 꾸미고 있다. 「半島의 性格論 비판」(이기백), 「停滯性이론 비판」(姜晉哲), 「黨派性論 비판」(李泰鎮) 등을 통해, 식민사관에 대한 재야쪽의 분분한 논의가 기실은 식민사관의 정체를 인식하는 데서나 그것의 극복 방법을 정립하는 데서나 모두 오류가 있음을 밝혀려 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학 강의’라는 고정란에 「민족주의사학의 계유형」(梁秉祐), 「민족주의사학의 문제」(吉玄讓) 등 서양사학자들의 글을 함

이 두권의 무크지는

내용이나 필진의 구성등이

거의 판이할 정도로 대조적이거나,

역사의 대중화라는

뚜렷한 목표아래 역사학계의

제반 논의를 일반인에게

개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 받을만 하다

께 실어 식민주의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의 비교 이해가 가능토록 꾸몄다.

李교수에 의하면, 1집에 이어 2집에서는 ‘古朝鮮의 제문제’를 특집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1집에서 제기된 史觀 및 방법론 비판이 고조선이라는 구체적 연구대상에 적용될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학계와 재야의 활발한 토론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시민강좌」1집에서는 金元龍교수가 자신의 연구생활을 회고한 「나의 한국고대 문화 연구편력」을 실어 역사 연구의 어려움을 일반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같은 원로학자의 연구생활 회고는 고정란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近現代史에 대한 집중적 거론

‘역사 연구의 대중화와 새로운 역사 인식의 정립을 위한 대중 역사지’를 표방하는 「역사비평」은 近現代史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참여 학자들도 대부분 증견 및 신진 연구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장도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사적 견해에 근접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또 「시민강좌」가 기왕의 연구업적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역사비평」은 새로운 견해를 표명하고 문혀졌던 사실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

제1집에서 특집으로 꾸민 「미군정의 성격과 민족문제」는 「역사비평」이 견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인식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즉 「미군정의 성격과 민족문제」는 해방 직후의 3년여간이 한국의 현상황을 결정적으로 자리매

김했다는 인식 아래 해방 직후의 시대, 그 시대의 남한사회에 대한 해방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방 직후의 3년여간이 한국의 현상황을 태동시킨 원인이라면, 그 3년여를 규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은 미군정의 성격에 있다는 것이 이 특집으로 묶여진 4편의 논문에 일관하여 흐르는 기본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 「해방직후 대구지방 정치의 전개과정」(정해구), 「8·15직후 광주지방에서의 정치투쟁」(김창진)은 대구 및 광주에서의 좌우의 투쟁 양상과 그에 대한 미군정의 개입 등을 상세히 소개한 소장학자의 지방정치사 연구논문으로서, 편집 실무자인 한상구씨에 의하면 “공개적인 지면을 통해서는 이 방면 연구의 거의 최초의 것”이라고 한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박호성), 「중국혁명에 대한 스탈린·트로츠키 논쟁」(최창남)을 묶은 기획논문은 특집에서 제기된 민족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참조틀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전자는 1960년대 동구권 공산국가에서의 민족이론을 소개하고 있고, 후자는 1926~27년의 중국 國共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밖의 개별 논문으로는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과 민족운동」(안병욱), 「역사소설의 반역사성」(이이화) 등이 있다. 안병욱 교수의 논문은 1830년대에 진주 등 영남 일대에서 일어났던 임술민란의 중심세력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흔히 알고 있듯이 하층민 뿐 아니라 부농층이라 할 수 있는 ‘饒戶’들 또한 민란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밝히고 있어 흥미롭다. 한편 이이화씨는 「역사소설의 반역사성」에서

동학농민전쟁관계 소설들을 예로 들어, 소설가들의 사료적 근거에의 충실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들의 동학농민전쟁을 이해하는 근본적 시각이 왜곡되어 있음을 공박해 사문논쟁적이다.

역사문제연구소추에 따르면 내년초에 나올 제2집은 ‘1920~30년대에 있어서의 민족해방운동의 제도선과 인물들’(가제)을 특집으로 꾸며 우파 민족주의 계열에서 사회주의쪽까지의 민족운동의 실상들을 4편의 논문으로 다룰 것이라고 한다.

한편 1집의 「한국민중사」사건 증언기록에 이어 앞으로도 그와 같은 근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계재할 예정인가 하면, 의병장이나 만주에서의 독립운동가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하는 인물평 시리즈도 2집에서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출판을 통한 역사의 대중화 작업

「韓國史市民講座」와 「역사비평」의 출간으로 이제 어느 모로든 출판을 통한 역사의 대중화작업이 첫발을 내디디게 됐다.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각종 역사관계 ‘강좌’나 ‘교실’과 더불어 출판을 통한 이같은 역사의 대중화 작업은, 일반인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제고에 학계의 인식변화가 덧붙여져 더욱 확산되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이 「韓國史市民講座」에서처럼 종래 권위적인 것으로 알려진 정통사학계의 인식변화에 기인한 것이든, 아니면 「역사비평」에서처럼 “이제 한국 사회와 한국역사의 주체인 민중은 자기자신의 역사지식을 회복할 때”라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든 일단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역사학계의 제반 논의를 일반인에 개방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시도의 계몽주의적 의미의 높이가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강좌」나 「역사비평」의 예에서 보는 것 같은 대중적 수준에서의 역사학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져 우리 역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한편, 그것이 학계의 전문 연구가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일련의 대중역사誌 창간에 즈음한 독자들의 바람이다.

— 강철주 기자